

암 II				번호: II - G - 4	
제 목	국문	지역사회 주민대상 조사에서 자가보고 암병력의 타당성 평가			
	영문	Validity of Self-reported Cancers in a Population-based Cohort Study in Comparison with Data from Central Cancer Registry			
저 자 및 소 속	국문	신애선 <sup>1)</sup> , 신해림 <sup>2)</sup> , 장성훈 <sup>3)</sup> , 이건세 <sup>3)</sup> , 박수경 <sup>3)</sup> , 유근영 <sup>1)</sup>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<sup>1)</sup> , 국립암센터 암역학관리연구부 <sup>2)</sup> ,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<sup>3)</sup> ,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<sup>4)</sup>			
	영문	Aesun Shin <sup>1)</sup> , Hai-Rim Shin <sup>2)</sup> , Soung-Hoon Chang <sup>3)</sup> , Kun-Sei Lee <sup>3)</sup> , Sue Kyung Park <sup>3)</sup> , Keun-Young Yoo <sup>1)</sup>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,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<sup>1)</sup> , Division of Cancer Epidemiology and Control, National Cancer Center Research Institute <sup>2)</sup> ,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, Konku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<sup>3)</sup> ,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, Kosin Univesity College of Medicine <sup>4)</sup>			
분 야	역 학 암	발 표 자	신애선 전 공 의	발표형식	구 연
진행상황	연구중 → 완료예정시기: 2002년 12월				
<p>1. 목적</p> <p>많은 역학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과거 병력을 조사하는 데에 설문 조사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.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주민 대상 설문 조사에서 자가 보고된 암 병력을 중앙암등록 자료와 비교하여 암 병력 항목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.</p> <p>2. 방법</p> <p>자가보고 암 병력은 한국인 다기관 코호트 연구의 충주와 함안 지역 기초 설문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. 대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중앙암등록 자료와 merging하여 암으로 진단 받은 대상자를 확인하였으며 이들 중 설문 조사 실시 이전에 암을 진단 받은 사람들을 분석에 포함시켰다.</p> <p>3. 결과</p> <p>1993년부터 2000년까지 두 지역에서 설문에 응한 대상자는 모두 9952명이었다. 이들 중 1984년 이후에 암을 진단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, 진단 받은 년도와 원발 부위를 보고한 대상자는 모두 60명이었으며 중앙암등록에 등록이 되어 있는 대상자는 62명이었다. 중앙암등록 자료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자가 암 병력 보고의 민감도는 40%, 양성예측도는 42%였으며, 암 병력 보고를 원발 부위가 일치하고 진단 시기가 1년 내외로 일치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을 경우의 민감도는 26%였다. 민감도는 암등록 시기가 최근일수록 (1994년 이전 33%, 1994년 이후 52%), 남성 (남성 43%, 여성 36%), 도시 지역 거주자 (충주 36%, 함안 26%), 고연령 (-59세 29%, 60-69세 41%, 70세 이상 58%)인 경우에 더 높았다.</p>					

#### 4. 고찰

본 연구에서는 암 진단의 기준으로 중앙암등록 자료만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자가보고 설문 의 양성 예측도를 과소 추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. 그러나 설문 항목의 민감도는 진단 자료가 보완이 되어도 변동이 거의 없을 것이므로 과거 암 병력에 대한 정보를 지역 사회에서 설문으로 수집할 때에는 설문 항목의 민감도를 고려한 해석이 필요 할 것이다.